

## 한국과 몽골의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한 학습방안 구축

### Construction of Learning Contents Using Korea and Mongolia Historical Heritage

오일환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Il-Whan Oh(ohil@khu.ac.kr)

#### 요약

우리나라에는 몽골의 영향을 받은 역사문화유산과 생활민속이 다양하게 남아있다. 그러나 한·몽 간의 국제문화 이해를 위하여 역사적 시각자료를 활용한 학습방안 및 콘텐츠 구축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고 과제이지만 오늘날 한·몽 관계의 한계와 현실 속에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에서 우리나라와 몽골의 역사문화 유적을 활용한 문화사적 융복합의 학습방안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한·몽 간의 역사문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7차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 과정의 국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역사와 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몽골인식과 박물관을 비롯한 문화기관의 전시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의 몽골 역사문화유산과 생활민속 자료를 활용한 문화사적 학습방안 및 몽골지역의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몽골이해 학습방안을 구축하였다. 연구결과로 한·몽 간의 역사적 인식과 문화적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국내에 남아있는 몽골 영향의 역사문화유산에 대하여도 세계사적 시각에서 학습 자료화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한·몽 간의 역사문화유산을 통한 문화사적 융복합의 학습방안은 교과 교육과정의 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국제문화의 특징을 이해하는 시각적 학습 뿐 아니라 양국을 이해하는 인문학적 연구의 기초로 활용할 수 있다.

■ 중심어 : | 한국과 몽골 | 역사문화유산 | 학습콘텐츠 | 박물관 |

#### Abstract

In Korea, the traces of Mongolian history and culture are often found in Korean life and customs. Under these perceptions, this study has attempted to develop the learning contents using the Mongolian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s in Korea. For this, the perspective on Mongolia in Korean History and Social Studies textbooks and the exhibition of Mongolian cultural materials in a museum have been analyzed. In addition, this study has researched a plan to develop learning contents for exhibition and education using the Mongolian historical & cultural heritage and folklore materials in Korea and people's perspective on Mongolia in the ancient western maps as a way of understanding the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between Korea and Mongolia. In addition, a way of taking advantage of the Mongolian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in Korea from the view of world history has been proposed to share historical views and promote cultural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Furthermore, the development of learning contents of the museum using the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between Korea and Mongolia could be grounds for humanistic studies from the view of understanding multicultural and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culture.

■ keyword : | Korea and Mongolia |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 Learning Contents | Museum |

## I. 서론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칭기스칸이 몽골을 통일한 이후 대제국 건설을 위한 팽창정책으로 인하여 정치적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사회문화적인 격변을 겪었다. 몽골과 우리나라는 1990년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양국 대사관이나 한·몽교류진흥협회, 재몽골한인회 등 관련 단체 등을 통하여 정치와 경제적인 교류가 증가하고 있다. 몽골은 러시아와 중국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156만 5000km<sup>2</sup>의 면적에 278만 명의 인구가 있다. 국내에는 3만명 정도의 몽골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몽골에는 2010년 12월 현재 2200여명의 재외동포 가운데 몽골인과 결혼한 가정은 300여 가구에 이르고 있다[1].

국내의 몽골관련 연구는 대학과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다문화 교육에 대한 개념과 방안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다문화 사회에 학문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2]. 몽골의 아동과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방안에 대하여 몽골의 역사문화, 사막화 방지, 황사방지 등의 문화교육의 필요성이나 학교와 연계하는 가족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었다[3]. 그리고 음악을 통한 몽골의 자연환경과 지형, 생활 풍습, 문화 등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다문화 교육 방안이 제시되었다[4].

국내에는 몽골관련의 역사 문화유적이 적지 않게 남아 있을 뿐 아니라 언어 문화적 영향이 남아 있는 민속유산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 교육과정이나 박물관에서 한·몽의 역사문화유산이나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한 학습방안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본 연구는 한·몽의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사적 융복합의 학습방안과 콘텐츠 구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7차 교육과정에서 국정으로 사용되던 중학교 국사와 사회과 교과서 및 고등학교 국사교과서를 비롯하여 창의와 인성을 강화하는 미래형 교육과정인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1년에 검정으로 발간된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비교 분석하여 몽골에 대한 교과 교육과정과 역사적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국내에서 몽골관련의 박물관 전시현황을 분석하여 몽골 이해 뿐 아니라 한·몽 관계의 문화교류 현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박물관은 다원화된 세계 사회를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통합된 학습장소이다. 또한 다양한 역사문화유산과 민속 문화를 연구하고 전시하는 박물관은 일반인 뿐 아니라 중등교육에서 국제이해 및 다문화 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적의 문화교육기관이다[5].

마지막은 국내에 남아있는 몽골의 역사문화유산과 생활민속자료를 비롯하여 몽골지역의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몽골이해 학습방안을 구축하고자 한다.

최근에는 네이버(naver)와 다음(daum) 등 대형의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비롯한 각종 홈페이지에서는 수많은 정보와 자료들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 이처럼 디지털 사회로 전환되어감에 따라 정보화 기기를 이용하여 역사유적이거나 유물을 찾아내어 교과 교육과정의 학생이나 일반인 대상의 학습 활용에 대한 연구는 점차 중요한 연구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과서 및 역사부도에 수록된 자료를 분석하고 박물관의 전시와 정보화 기기를 이용하여 검색한 인문학적인 학습 자료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II. 중고 교과서와 박물관 전시의 몽골 인식

### 1.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몽골 인식

7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국사 교과서에 나타난 몽골은 ‘몽고와의 전쟁과 자주성의 회복’ 주제로 학습하고 있다. 학습 내용은 몽고가 고려를 침입한 배경과 우리민족의 대응 그리고 삼별초의 대몽항쟁이다[6].

주요 내용으로는 세부분으로 나뉘는데 먼저 몽고와의 접촉에서는 ‘13세기 초의 동아시아 정세’에서 칭기스칸이 몽고제국을 건설한 후 몽고가 금을 공격하면서 거란이 고려에 침입을 한다. 이에 몽고와 고려가 연합하여 강동성전투에서 거란을 격퇴하는 과정을 학습한다. 두 번째는 ‘몽고의 침입에 대한 항전’으로 귀주성 전투, 충주성 전투, 처인성 전투 등을 살펴보고 강화 천도와 팔만대장경의 조판과정을 학습한다. 세 번째는 ‘몽고와

의 강화'로 최씨 정권이 붕괴하면서 강화를 체결한 후 개경으로 환도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삼별초의 항쟁'으로 개경천도를 반대하면서 강화에서 진도 그리고 제주로 이동하면서 항쟁하는 과정을 그리며 고려인의 자주정신을 학습한다. 이러한 항몽 학습과정에서 팔만대장경 조판과정과 고려인의 자주정신을 이해한다.

중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회 교과서에서 몽골은 '동아시아 사회의 변화와 서민사회의 성장'에 등장하고 있다. 이 단원에서는 유목민의 이동식 가옥인 게르와 초원시대와 중국식으로 변한 유목민 복장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중국 한족과 북방민족과의 관계를 시대별로 이해하고 몽골족이 동서 문화교류에 공헌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동서양에 걸친 큰 나라 몽골의 대제국의 영역지도와 함께 몽골기병 및 역참제 그리고 잡곡의 발달과 몽골제일주의에 대한 내용을 학습한다[7].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국사와 사회에서 몽골에 대한 인식은 세계사적 시각과 민족사적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시각자료를 활용한 학습내용에서도 상당한 인식의 격차를 볼 수 있다. 물론 몽골의 교과서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8].

이는 국사가 자국중심주의와 자민족중심주의에서 서술되고 있기에 미약한 세계사적인 관점으로 인하여 침략적이었던 몽골을 비롯한 북방민족을 정복왕조로 이해하는 원인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학습과정에서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사와 대다수의 사회교과서에 나타난 몽골은 중국식 한자 표현인 몽고를 사용하고 13세기 몽골의 고려 침략 사실을 서술하면서 정복왕조의 개념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몽골에 대한 인식은 고등학교 국사에서도 중학교와 비슷한 몽골에 대한 항쟁과 원의 간섭에 따른 사회적 변화가 주요 학습내용이다.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서 먼저, '통치구조와 정치활동' 단원의 몽골과의 전쟁항목에서 13세기 초의 동아시아 정세와 민중의 대몽항쟁은 중학교의 국사교과서와 비슷한 항전 내용과 원나라 성립으로 고려에 대한 정치적 관계 변화 및 왕실의 호칭 격하, 지방행정기구 변화 등에 대하여 학습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구조와 생활'

단원에서는 몽골의 침입과 백성의 생활 및 원 간섭기의 사회변화, 몽골풍 등을 학습하고 있다[9].

이러한 7차 교육과정의 국정교과서 과정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검정교과서로 개편되었다. 중학교에서는 역사 교과서가 발간되었고, 고등학교에서는 한국사, 세계사, 동아시아사 교과서로 나뉘었다.

개정된 교과서에는 몽고에서 몽골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개정된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국사와 세계사가 혼합된 형태이다. 집필기준에 몽골관련은 '고려의 성립과 변천'에서 고려가 장기간 항쟁의 대내외적인 요인과 피해 그리고 반원정책 등에 대하여 서술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통사회의 발전과 변모'라는 단원에서는 몽골제국이 대제국을 건설하여 동서교류를 확대한 영향을 파악하고 원나라와의 차이에 유의하도록 하였다[10].

이러한 기준으로 집필된 중학교의 검정 역사교과서는 8종(교학사 2종, 대교,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이 있는데 '고려 사회의 변천'에서 몽골의 침입과 대몽항쟁으로 기존의 국정교과서 내용과 유사하게 몽골을 기술하고 있으며 관련 지도, 사진, 삽화 등을 활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는 한국사, 세계사, 동아시아사로 구분하여 집필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검정 한국사 교과서 6종(미래엔, 범문사, 비상교육, 삼화출판사, 지학사, 천재교육)이 있다[11].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고려와 조선의 성립과 발전'단원의 고려의 대외관계와 사회문화의 발달에서 몽골을 서술하고 있다.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변화 속에서 몽골의 침입과 오랜 간섭에서 몽골문화가 유입되면서 고려의 풍습과 일상생활에 혼란을 가져왔지만 새로운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동아시아와 세계사적 맥락에서 국제질서의 변화과정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세계사에서는 '지역세계의 재편과 성장'에서 몽골제국의 팽창에 의해 유라시아에 교통과 교역체계가 통합되어 인적, 물적, 지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파악하고 유라시아 교역망이 인도양 교역을 통해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역망으로 확대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각 지역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는 모습을 학습하도록 하였다.

동아시아사에서는 '몽골제국의 성장과정과 세계'에서

제국으로의 발전 요인을 군사적 측면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상황도 연계하여 파악하고 몽골 제국의 성립으로 각 지역에서 형성된 교역망이 연결됨으로써 경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여러 민족의 문화와 종교가 다양하게 공존함을 이해한다. 또한 몽골의 대외 정복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이 시기를 전쟁위주로 설명하거나 당시 동아시아 각국의 관계를 지배, 피지배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지 않도록 하였다[12].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국정과 검정 교과서의 몽골에 대한 서술은 기본적인 학습 자료는 비슷하지만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세계사적인 동서 교류의 평가는 고려의 대몽항쟁이라는 민족적 정체성 확립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과도한 민족주의적 해석을 경계하고 다양한 시각적 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세계적 시각에서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와 보다 개방적이고 유기적인 역사학습방안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몽 간의 역사유산에 대한 국제이해를 위해서는 문화사적인 접근 방법으로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시각자료를 활용하는 세계사적인 시각의 학습방안이 필요하다.

## 2. 국내 박물관의 몽골전시 현황과 실태

우리나라는 1909년 제실박물관 설립을 시작으로 국공, 사립, 대학을 합쳐 2011년 현재 700여개의 박물관이 있다. 박물관은 자료를 수집, 보존, 전시하고 이들을 조사, 연구하여 문화, 예술 및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교육에 이바지하는 목적의 문화시설이다[13].

따라서 박물관에서는 자연조건이나 지역적 특징시설의 물리적 자료와 풍속, 관습, 전통 등의 생활양식을 살펴보는 심리적 자료 그리고 문헌과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통합적 학습을 할 수 있다. 이에 국내의 박물관에서 진행한 몽골 관련 전시현황을 인터넷 검색과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14].

먼저, 고고학적 전시형태로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몽골유적조사 5년’(2002.4.23-5.19)이라는 고고학적인 공동조사에 대한 성과를 처음으로 전시하였다. 서울대학교 박물관의 ‘몽골, 초원에 핀 고대문화’ 기획특별전(2008.10.10-2009.1.15)은 선사시대 청동기와 철기시대

의 히르기수르, 판석묘, 암각화, 사슴돌, 찬드만 유적과 유물이 전시되었고 고구려 관련 퀴테긴 비와 발해 관련 거란성터가 소개되었다.(서울대학교 박물관, 2008.10)

둘째, 민속학적 전시형태로는 한·몽 수교 이후 처음으로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칭기스칸의 영광-대몽골전’(1996.1.6-3.27)이 전시되었다. 칭기스칸 시대의 무구류를 비롯해 불상과 불화 등 종교관련 유물, 의상과 금은제 장식품, 생활용품 등 200여점이 소개 되었다.(동아일보, 1996.01.05 21면)

그리고 경기도박물관 ‘초원의 대서사시 몽골유목문화대전’(1999. 6-8.22)은 유목생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전이다. 몽골의 3개박물관과 일본 국립민족학박물관 및 국내 소장품을 비롯하여 500여점이 전시되었고 전통가옥 게르, 전통의상 입어보기, 악기연주해보기, 말뚝 줍기, 음식 만들기, 씨름, 몽골 영화보기 등의 체험이 진행되었다.(경향신문, 1999.06.26, 11면)

셋째, 문화사적 체험형 전시형태로 국내에서 박물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몽골문화촌은 2000년 개관한 이후 전시관, 역사관, 생태관, 어린이체험관 등 복합관광지 형태로 구성되었다. 역사와 자연환경, 민속예술공간으로 나누어 의상, 장신구, 악기, 생활용품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상설 공연장과 체험장이 있다.

넷째, 일회성의 민속체험 전시형태로는 인제대학교 김학수기념박물관의 몽골문화전시회(2006.5.15-5.20)는 몽골 게르와 내부생활도구를 전시하고 전통예술 공연과 한·몽 문화소개 및 영화 상영, 전통음식과 놀이가 소개되었다. 또한 건국대학교 병원의 사진전시회(2010.4.23-4.30)는 몽골의 자연환경과 문화, 사람들을 주제로 70점의 사진이 전시되었다. 이 뿐 아니라 모란미술관에서는 ‘몽골의 하루’(2010.8.29-9.30)라는 몽골 미술전을 개최하였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과 재한몽골학교는 몽골문화의 날(2011. 11.26)을 기념하여 다문화가정, 일반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통공연, 그림사진전, 음식과 의상체험, 게르 전시, 춤과 노래 배우기 등 몽골 문화를 소개하였다.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은 몽골 게르를 비롯한 생활민속자료를 이용한 어린이 문화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한·몽 수교 21주년을 기념하여 ‘세계 고지도 속의 몽골과 코리아’특별전(2011.7.9-7.15)을 몽골국립아트갤러리에서 고지도와 문헌자료 50점을 전시하였다. 서양고지도에 나타난 몽골의 역사를 비롯하여 동해와 독도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세계문화유산을 소개하였다[15]. 그리고 2014년 개관을 목표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을 준비하면서 바위가 기억하는 삶과 역사(2011.10.27-11.6)라는 몽골암각화에 대한 워크숍과 전시회를 진행하였다.

다섯째, 이러한 전시회 이외에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국제이해 교육활동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진행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대상으로 우리문화를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외국인 대상의 다문화교육으로 어린이, 성인, 가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주민을 위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와 외국 어린이, 외국인 노동자, 여성 결혼이민자, 주한 미군,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16].

국립민속박물관은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여성 및 가족과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민속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대상으로는 성인, 청소년, 어학원 학생, 주한 미군,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으로 넓히고 있다[17].

여섯째, 국내에서 몽골에 대한 연구 활동은 단국대학교의 몽골학과가 최초로 개설(1993)되면서 가장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몽골어과(2009) 이외에도 각종 연구단체가 있다.

이외에 공영방송이나 신문매체를 통한 소개를 비롯하여 사진이나 그림전시회 그리고 개인의 답사와 여행기의 출판물이 산재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인터넷 환경의 발달로 인하여 여러 종류의 다양한 몽골 정보를 접할 수 있으며 근래에는 몽골 가옥 게르를 이용한 학습장이 설치되고 국내 거주 몽골인의 나담 축제가 소개되기도 한다[18].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국내의 몽골 관련 전시는 단기간의 특별전으로 진행되면서 대부분이 생활 관련 민속전시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국내 박물관

관의 전시형태는 대부분이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지방에서는 몽골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19]. 이처럼 불리한 학습 환경에서 효율적인 교육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학습현장 방문 이외에 박물관의 전시와 시각적 자료를 활용한 융복합의 학습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0].

### III. 몽골이해를 위한 학습방안과 콘텐츠 구축

#### 1. 한·몽 역사유산 이해를 위한 학습방안

역사는 민족적 우수성 자각과 책임감을 학습하는 것이지만 자국의 우월성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국수주의는 배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적 문화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문화사적 학습방안과 콘텐츠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21].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국사 교과서에서 몽골은 ‘고려의 대외관계’ 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10세기에서 11세기에는 거란의 침입에 대하여 서희의 담판으로 강동6주 획득과 강감찬의 귀주대첩 등으로 국난을 극복을 하였으며 12세기에 들어서는 윤관의 여진 정벌로 동북 9성을 축조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13-14세기에 들어서는 몽골의 등장과 침입으로 대몽항쟁을 거쳐 원의 간섭으로 변화하는 고려의 풍속과 공민왕의 개혁정치를 학습하고 있다. 특히 몽골의 침략에 대하여 처인성을 비롯한 대몽전투와 팔만대장경 조판 그리고 주화과의 득세와 무신정권의 붕괴에 따른 개경환도 및 삼별초의 강화도, 진도, 제주도 항쟁이 주요 학습이다.

이러한 북방민족과의 대외관계를 시각적 문화유산 자료를 활용하여 지리적 환경 및 문화적 특징과 의미를 살펴보도록 [표 1]과 같이 학습방안을 구축할 수 있다.

표 1. 한몽 역사유산 이해를 위한 학습방안

학습주제	-한국에 남아 있는 몽골의 역사유산 -한몽 간의 역사적 관계로 남겨진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국제이해와 역사의식을 함양한다
학습목표	-몽골 국가문화, 역사교류 내용 학습 -고지도에서 몽골과 한국의 역사 공간 확인

		-한국문화에 남아있는 흔적 발견 -한몽 역사문화유산 체험을 통한 국제이해
내용개요		-교과서와 박물관의 자료를 통하여 한몽 간의 역사 인식의 차이를 알 수 있다. -한몽의 역사유산에 대한 이해와 체험을 통하여 민속생활상을 비교 이해한다 -전시학습콘텐츠의 구축 필요성을 이해하고 활용방안의 중요성을 모색한다
준비물		학습품, 체험활동 재료도구 몽골관련 활동지, 영상기기, 수업강의 도구, 고지도, 교과서, 역사부도, 사진자료
동기 유발 사전교육		한몽 국가 개요 및 문화, 역사 소개 몽골영상 사진자료
학습 활동	역사	고지도와 교과서를 통한 흔적 찾기 고려궁지, 선원사지 전등사범중(강화도) 용장산성(진도) 항파두리 토성(제주) 몽고정(마산)
	민속	인터넷을 활용한 풍속 문화 탐색 비교 몽골풍과 고려양 복식, 언어, 음식 연지끈지, 족두리, 무속, 제기차기, 활쏘기
	체험	한몽 역사문화유산의 발 견과 비교체험 해정박물관 남양주 몽골문화촌
정리발표 및 토론		고지도의 한몽이해 한몽 발전방안 한몽 국제이해 설문작성 및 평가

먼저 학습주제를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몽골관련 역사유산을 탐구하기 위하여 역사적 사건과 시간에서 남겨진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국제문화의 이해를 도모하고 역사의식을 함양하도록 설정한다.

그리고 학습목표는 몽골국가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고지도에서 몽골의 역사적 위치와 지리적 공간을 확인하고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역사문화유산의 흔적을 찾아내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고지도와 교과서에 나타난 흔적 찾기로 고려궁지, 선원사지, 전등사범중(강화도), 용장산성(진도), 항파두리 토성(제주), 몽고정(마산) 등을 학습 자료로 활용한다. 그리고 해인사 팔만대장경판(합천)이나 대몽항쟁전승기념탑(충주) 이외에 경천사지 십층석탑(국보86호)과 불탑사 오층석탑(제주) 등을 활용하여 문화적 독자성을 비교하도록 구성한다.

두 번째는 한·몽의 민속과 체험을 통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활용하여 복식, 언어, 음식 등 몽골풍과 고려양에 대하여 검색하고 확인한다.

머리모양의 변발과 복식이 포에서 철릭으로 변화하는 호복 및 신분 호칭인 무수리, 직업을 나타내는 치를 비롯한 언어 및 음식으로서 수라와 증류방식의 소주 기

원 및 몽골군 주둔지였던 안동, 개성, 제주도의 연계성도 살펴본다. 그리고 천산대렵도에 나타난 그림 및 기황후, 공녀 등을 이해하고 연지끈지, 족두리, 무속, 제기차기, 활쏘기의 생활문화를 비교한다.

이러한 생활민속과 풍속에 대한 이해는 비록 정치적 과정에서 비롯되어 변형되었으나 점차 현지화 되면서 자주적으로 변용하여 정체성이 확립되어가는 과정을 학습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한·몽 역사유산의 체험으로서 박물관 학습을 하는 것이다. 해정박물관에서는 몽골 게르를 전시하면서 어린이 문화교실을 통하여 몽골문화에 대하여 학습하고 있다. 비단길을 통한 동서 문명의 교류에서 체험학습으로 초원의 몽골 게르를 활용하여 유목민의 다양한 생활용품과 민속의상 그리고 전통문화를 학습하는 것이다[22]. 이외에 몽골문화촌을 비롯한 몽골관련의 체험 활동을 통하여 몽골지역에 대한 문화사적 이해를 학습하도록 한다.

이러한 구성은 국가에 대한 문화 인식 뿐 아니라 민족의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역사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박물관의 학습프로그램을 통하여 역사의식과 함께 문화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의 역사교육 과정이나 박물관에서 관람하는 학생들에게 고지도와 사진자료를 활용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역사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습활동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다.

## 2. 몽골이해를 위한 지역문화 학습방안

서양에서 타타르와 몽골은 서양의 선교사와 상인을 통하여 점차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13세기에 들어 카르피니, 루브르크, 마르코 폴로에 의하여 널리 알려졌고 몽골을 방문한 여행 기록이 고지도로 남아 있다.

이 단원의 학습에서는 이러한 서양고지도와 사진을 통하여 유목민족이 활동하던 몽골지역을 확인하고 위치를 파악하여 유목 북방민족 국가의 성립 배경과 변천을 시대별로 살펴본다.

이와 함께 영상자료와 인터넷 등으로 유목민족의 역사적 사실과 풍속 및 문자를 조사하여 비교한다. 그리

고 영토 확장과정을 연표로 정리하고 고지도에 나타난 국가들과의 국제관계에 대하여 살펴도록 한다. 또한 몽골 지배에 대한 저항과 유목민족국가의 급속한 쇠퇴 원인을 파악한다.

이 뿐 아니라 동서 문화가 활발하게 전개된 배경과 몽골 초원의 유목민 문화유산을 제시하여 역사와 시각적인 문화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 2]와 같이 학습방안을 구성한다.

표 2. 몽골이해를 위한 지역문화 학습방안

학습주제	몽골제국의 지리적 위치와 역사 공간 동서문화 교류의 공헌 몽골 문화유산과 국제 이해		
학습목표	고지도와 동양사회의 역사적 배경 몽골 대제국 건설의 원동력과 쇠퇴 원인 콘텐츠 구축 필요성과 활용방안		
내용개요	동서양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한다 고지도와 기록물의 몽골의 역사 공간 학습 고지도에 사용된 부호와 기호를 이해 몽골의 동서문화 교류 공헌을 이해		
준비물	학용품, 체험활동 재료도구 몽골관련 활동지, 영상기기, 수업강의 도구, 고지도, 교과서, 사진자료		
동기유발 사전교육	몽골 개요 문화, 역사 소개	몽골영상 사진자료	
학습 활동	고지 도	서양고지도와 만나다	시대적 배경 방문자의 특징 고지도의 부호, 기호 지역인식, 여행노선
		몽골 건국과 역사	
	생활 문화	몽골초원의 문화유산	세계문화유산 생활문화유산
정리발표 및 토론	대제국건설의 원동력과 쇠퇴 동서문화 교류 공헌	몽골 국제이해 실문작성 및 평가	

### 2.1 서양고지도에서의 몽골

서양고지도에서 동양은 아시아, 타타르, 차이나로 그려지고 있다. 아시아 지도는 동쪽의 일본에서 서쪽으로 아라비아 반도까지를 아우르고 있다. 차이나는 중국의 만리장성에서 시베리아지역 그리고 동쪽 일본에서 서쪽의 흑해까지 그리고 있다. 이러한 지역인식은 타타르가 동양의 북쪽지역에 커다란 지역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타타르는 13세기 루부르크, 카르피니, 마르코 폴로 등의 선교사와 여행가의 기록에 근거하여 제작된 [그림 1]에 나타난 고지도들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오즈크해, 타타르해협 및 일본에서 서쪽으로 흑해 사이의 광범위한 대륙지역을 일컫고 있다[23].



그림 1. 루부르크와 카르피니의 고지도

#### ① 루부르크의 몽골여행도

루부르크(1215-1270)는 프랑스 루이 9세의 명으로 1253년에 칭기스칸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지도에는 산맥, 삼림, 사막, 하천, 호수, 도시 등이 나타나 있으며 여행노선은 점선을 사용하였다.

이 뿐 아니라 유목지역은 삼각형의 천막부호를 사용하였고 몽골지역에는 바이칼 호수와 함께 대규모 목축 지대가 나타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섬으로 그려져 있어 부정확한 지리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카르피니의 타타르지도

이탈리아 선교사이던 카르피니의 기록에 의하여 1246-1247년 방문했던 타타르지역을 ‘근대 세계여유기 정지도집’(1707)에 수록되어 있다. 카르피니의 행로가 나타나 있으며 산맥, 하천, 호수, 도시, 천막 등이 나타나 있다.

#### ③ 마르코 폴로의 여정도

이탈리아 베니스의 마르코 폴로(1254-1324)는 1252년 출발하였는데 지도에는 타타르, 몽고, 일본, 동인도 군도와 아프리카 등이 그려져 있다. 1729년에 제작되었고 ‘신기여유기행취편’에 있는 지도이다.

### 2.2 몽골의 건국과 역사

몽골제국은 흉노, 유연, 돌궐 등과 같은 초원제국 이전부터 독특한 초원경제로 발달하면서 고대 유라시아 동서교류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고지도를 활용하여 대제국의 형성과 시대적 배경을 학습하도록 한다.

중학교의 사회교과서에는 동서양에 걸친 큰 나라 몽골의 대제국건설과 함께 영역지도가 있다. 십자군 전쟁과 셀주크 튀르크 등의 종교와 민족의 대립과 항쟁으로 인하여 이들 세력이 약화되면서 몽골에 공동으로 대항

하지 못하였다.

또한 동서 무역로의 중단 위기로 인하여 초원길 주위의 상업 국가들과 이슬람상인들은 몽골의 정복사업을 지원하게 되었다. 그리고 몽골기병과 정복지에 대한 역할참여를 실시하면서 몽골 제일주의 정책으로 민족적인 차별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그림 2]의 서양고지도에 나타난 영역과 비교하고 표현된 특징에 대하여 학습 방안을 강구한다.



그림 2. 마르코 폴로의 여정도와 교과서의 몽골영역 지도

루부르크 지도는 동쪽 시베리아에서 서쪽으로는 카스피해와 흑해 그리고 지중해 동부까지 포함하고 있다. 동양해(오션오리엔탈)와 유구, 일본, 코리아 등이 섬으로 그려져 있으나 부정확한 지리인식을 알 수 있다.

카르피니의 지도에는 일본이나 중국의 동부해안은 나타나지 않지만 오츠크해에서 시베리아를 거쳐 카스피해, 흑해 그리고 지중해의 동부지역까지 나타나 있다.

마르코 폴로의 지도는 유목지역에 대한 표시는 나타나 있지 않다. 지도에는 일본에서부터 아프리카와 유럽이 나타나 있으나 동쪽지역이 매우 불확실한 지리적 지식을 보여 주고 있다. 일본이 동시베리아와 연결하고 있으며 북해도와 본주가 연결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드릴형태로 그려졌고 동해에는 메르 오리엔탈로 나타나 있고 코레왕국으로 표기되어 있다.

### 2.3 몽골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학습방안

세계유산은 전 세계 153개국에 보유하고 있는 936점(2011년 8월 현재)에 이른다. 이 가운데 문화유산이 725점, 자연유산 183점, 복합유산이 28점이다. 2011년 8월 현재 세계유산협약 가입국은 188개국이다[24].

몽골의 세계문화유산은 1990년 가입하였으며 자연유산인 울스분지(2003년 지정), 문화유산인 오르콘 계곡 문화경관(2004년 지정), 몽골 알타이의 암각예술군

(2011년 지정)으로 총3건이며 기록유산은 2건으로 탕구르와 알탄툽치(2011년 지정)가 있다.

문화유산을 활용한 학습방안으로는 몽골과 우리나라의 세계문화유산을 비교하면서 자연환경과 문화경관 그리고 동북아 암각화 예술로서의 울주 반구대 암각화의 특징을 비교 학습하도록 한다.

그리고 생활민속유산으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거주공간을 세계가옥과 취락분포사진을 비교하거나 각 문화권별 독특한 생활 모습관련 사진 그리고 독특한 문화 형성의 원인을 탐색한다.

또한 몽골 겨울의 혹독한 추위, 원거리에 위치한 이웃 환경, 말, 낙타 등 가축과 보내는 유목생활, 이동식 가옥 게르 생활에 관한 몽골인들의 사고와 생활양식을 학습한다.

## IV. 결론

우리나라에는 몽골의 영향을 받은 역사문화유산과 생활민속이 다양하게 남아 있다. 그러나 한국과 몽골의 역사문화유산을 시각적으로 활용한 문화사적 융복합의 학습방안은 찾아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함은 오늘날 한·몽 관계의 현실과 한계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남아 있는 몽골의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하여 문화사적 융복합의 학습방안과 콘텐츠를 구축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국내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역사와 한국사 교과서에 나타난 몽골인식을 분석하였고 박물관을 비롯한 문화기관의 전시현황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한·몽의 국제문화와 역사문화유산을 이해하기 위하여 국내에 남아 있는 몽골의 역사문화유산과 생활민속 자료를 활용하여 문화사적 학습방안과 콘텐츠 구축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몽골지역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몽골의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학습방안을 구축하였다.

앞으로 한·몽의 역사적 인식과 문화적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서 역사부도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국



내에 남아있는 몽골 영향의 역사문화유산에 대해서도 세계사적인 시각에서 정보자료화하고 활용하는 학습방안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제적인 이해와 협조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주변 국가에 대한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의 기초가 제공되는 세계사 학습이 더욱 필요하다. 이와 함께 세계사적 문화에 대한 국제이해의 기초를 제공하는 박물관의 역할을 활용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문화사적 활동과 함께 한·몽 지역의 문화유산 뿐 아니라 생활문화유산으로 확장하여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와 네트워크를 통한 학습방안과 콘텐츠를 개발하여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의 몽골인 거주 공간문화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외교통상부 재외동포현황 재외동포(지역별 상세, 몽골) <http://www.mofat.go.kr/travel/overseascitizen> (2012.1.20)

[2] 권충훈, 김훈희,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경험 선정아이디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8권, 제8호, pp.293-302, 2008.

[3] 아리온사나, *재한몽골인 아동과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4] 김윤선, *몽골음악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교육: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박환영, “다문화 속의 에스니시티와 유목성 고찰: 재한 몽골인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제15권, 제1호,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pp.97-128, 2009.

[5] 김인희, *박물관을 이용한 다문화이해 교육프로그램*, 한국박물관교육학회 박물관교육총서3, 2009.

[6] 국사편찬위원회, *중학교 국사 교사용 지도서*, 교육인적지원부, pp.266-270, 2005.

[7] 조희룡, *중학교 사회1 교사용 지도서*, (주)금성출

판사, pp.326-328, 2009.

[8] 수랭오트공바야르, *다문화가정 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 한·몽골인의 인식도 차이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51-61, 2008.

[9] 국사편찬위원회 국정도서편찬위원회, *고등학교 국사 교사용 지도서*, 교육인적지원부, pp.216-219, 2009.

[10] 교육과학기술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2011.11.9.

[11] (사)한국검정교과서 <http://www.ktbook.com>

[12] 교육과학기술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2011.12.30.

[13] 법률 제10367호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제2조(정의)

[14] <http://www.naver.com>, <http://www.daum.net>

[15]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 <http://oldmaps.khu.ac.kr>

[16] 국립중앙박물관, *2009국립중앙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자료집*, pp.99-108, 2010.

[17] 국립민속박물관, *박물관교육의 이해*, 2007교육백서, pp.131-141, 2007.

[18] 심효윤, “도시의 다문화축제 연구: 재한몽골인 나담(naadam)축제를 통해서”, 인문사회연구, 제6호, pp.259-277, 2010.

[19] 김태연, 박옥미, “한국박물관에서의 타문화 전시 현황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16, No.3, pp.108-119, 2010.

[20] 손기인, *타문화 전시 연계 다문화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방안: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21] 오일환, “한·중 경계지역 문화유산을 이용한 박물관 전시 구축의 교육적 활용”,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1호, pp.184-192, 2011.

[22] 오일환, “박물관의 서양고지도를 이용한 전시학습콘텐츠 개발과 활용에 관한 연구-전시콘텐츠의 탐구와 체험학습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16, No.3, pp.310-320, 2010.

[23] 國立故宮博物院, 『經緯天下:飯塚一教授捐贈古地圖展』, pp.19-22, 民國94.

[24] 유네스코와 유산, 세계유산 목록(몽골)  
[http://www.unesco.or.kr/heritage/mow/list\(2012.1.20\)](http://www.unesco.or.kr/heritage/mow/list(2012.1.20))

### 저 자 소 개

오 일 환(Oh-Whan Oh)

정회원



- 1984년 2월 : 경희대학교 사학과 (문학사)
  - 1988년 2월 : 경희대학교 대학원 사학과(문학석사)
  - 1997년 1월 : 中國 南開大學 대학원(역사학박사)
  - 2002년 ~ 현재 :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 학예연구실장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부교수
- <관심분야> : 박물관콘텐츠, 역사지도학, 한중사회사